탐방시나리오

계절별 시나리오

제목 : 법주사자연관찰로(봄)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

법주사자연과찰로 계절별 시나리오(봄)

1. 만남과 인사나누기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날에 저희 속리산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곳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자연과 문화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자연환경안내원 ○○○입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곳, 그리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국립공원은 그 특성에 따라 산악공원, 해상*해안공원, 사적공원으로 나누어져 전국에 20곳이 있습니다. 그 중「속세를 떠나는 산」,「속세에서 떨어져 있는 산」이란 의미의 저희 속리산은 1970년 3월 24일 6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천년고찰인 법주사와 물이 맑기로 소문난 화양계곡, 쌍곡계곡, 만수계곡 등이 있어 일년 내내 많은 탐방객이 찾아오니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명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봄의 향기를 느껴요

겨우내 한껏 움츠려 있던 숲 속 가족들이 기지개를 펴는 봄입니다. 역시 추운 겨울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힘겹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어느 새 낙엽을 뚫고 복수초, 노루귀, 현호색, 산괴불주머니 등의 새싹들이 돋아나고, 나무의 겨울눈들을 흔들어 잠을 깨우듯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댑니다. 숲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흙 내음이 정말 싱그럽게 느껴지네요. 이렇듯 화창한 봄날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분이 더욱 좋아지는데요, 잠시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 따위는 말끔히 씻어버리고 속리산의 싱그러운 봄 숲에서 저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즉, 오감(보기, 듣기, 냄새 맡기, 맛보기, 느끼기) 에 마음까지 더해 육감으로 체험하고 봄 숲의 넘쳐나는 생명력과 향기를 가득~가득~ 담아가셔서 함께 오지 못한 분들에게 나누워 주시길 바랍니다.

3. ‘봄의 여왕’ 백목련

하얀목련(노래:양희은)	 백목련
(해설자가 직접 노래를 불러본다)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비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우리 따스한 기억들 언제까지 내 사랑이어라/ 내 사랑 이어라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나 아름다운 사랑얘기를 /잊을 수 있을까 그대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겨울눈

매년 4월 목련이 필 무렵이면 어김없이 여기저기서 이 노래가 흘러나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얗고 커다란 꽃을 피우는 목련은 ‘봄의 여왕’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데요. 커다란
꽃이 잎이 나기도 전에 피어 더욱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너무 일찍 꽃이 지기 때문에 더
욱 안타깝고 가슴이 저미는 걸까요?

대부분 우리가 보고 목련이라 부르는 꽃은 사실은 '백목련'이랍니다. 실제 목련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목련은 꽃잎 안쪽이 붉은색을 띠는 반면 백목련은
전체적으로 흰색입니다. 법주사의 사리각이 있는 능인전 앞에 가면, 백목력 속에 숨어 있는
목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흔히 목련의 꽃을 팝콘에 비유하며, 불교에서는 나무
에 핀 연꽃이라는 의미로 목련(木蓮)이라고 부릅니다. 사찰의 문살 문양에서 보여지는 6장

의 꽃잎을 가진 연꽃은 목련을 형상화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목련의 겨울눈을 본 적이 있나요? 겨울 동안 잔털들이 꽃눈을 꼭꼭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북쪽을 향해 꽃을 피우는 목련은 임금님을 향한 충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꽃봉오리는 약간 매운 맛이 나는데 한방에서는 이를 '신이화(辛夷花)'라고 하여 약용으로 쓰며 꽃으로 술을 빚거나 말린꽃을 차로 달여 먹기도 합니다. 목련술은 감기에 잘 걸리고 콧물이 잘 나오는 사람에게 좋으며, 목련차는 혈압을 떨어뜨리고 비염이나 두통에 효과가 있답니다. 모든 식물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적절히 이용한다면 우리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다만 이곳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국립공원이기 때
문에 목련을 비롯한 식물들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오신 모든 분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씨의 소유자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다른 이름의 유래◆

-옥처럼 깨끗하고 소중한 나무라 하여....."옥수"
-옥 같은 꽃에 난초 같은 향기가 있다 하여...."옥란"
-난초 같은 나무라 하여....."목란"
-꽃봉오리가 모두 북쪽을 향했다고....."북향화"
-꽃봉오리가 붓끝을 닮았다고....."목필"

4. 숲 속의 귀염둥이 다람쥐



저기! 다람쥐 좀 보세요. 와~다람쥐다.

3월 중순이 지나면서, 겨우내 보이지 않던 다람쥐와 청설모의 활발한 움직임이 종종 관찰됩니다.

봄이야말로 숲에 사는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사람들에게 까지도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환희의 계절입니다. 다람쥐는 대개 낮에는 땅에서 생활하며 밤, 도토리, 잣 등의 종자를 먹습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볼에 있는 주머니에 넣어 바위나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먹습니다. 누군가에게 빼앗

길까봐 의심이 많아서일까요? 또한 먹다 남은 열매는 땅속이나 구석진 곳에 감추는 버릇도 있답니다. 양쪽 볼주머니는 도토리를 2개씩 넣을 수 있는 크기랍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나무구멍이나 바위구멍에 마련한 보금자리에서 잠을 잡니다. 또한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는 대표적인 동물인데요. 겨울이 되면 굴속에 이끼와 나뭇잎으로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까운 곳에 먹이 저장창고를 만든답니다. 그만하면 다람쥐의 생활을 이해하겠지요?

여기서 잠깐퀴즈를 하나 낼게요. 맞추는 분께는 선물을 드릴 텐데요.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다람쥐가 가장 좋아하는 도토리 3개!

다람쥐 등의 검은 줄무늬는 과연 몇 개일까요? "정답" 다람쥐 등의 검은 줄무늬는 5개랍니다.

5. 진달래는 '참꽃', 철쭉은 '개꽃'



진달래 ▲



산철쭉 ▲

요즘은 진달래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의 앞산과 뒷산엔 온통 진달래가 울긋불긋 피었답니다. 진달래가 피는 봄만 되면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온 산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진달래꽃을 따 먹기도 하고, 오래도록 보려는 욕심에 한 아름 꺾어다 집안에 꽂아 두기도 했고, 어머니께서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쳐주셨던 기억도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진달래는 4월경 두견새가 울 때 피는 꽃이라 하여 '두견화', 먹을 수 있는 진짜 꽃이라 하여 '참꽃'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름다운 꽃이지만 음식재료로 쓰이기도

해서 옛날 어른들은 '두견주'라는 술을 담가 마시기도 했고, 쌀가루 반죽에 진달래 잎을 예쁘게 놓아 전을 부쳐 먹기도 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꽃으로 만든 전 '화전'인데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지요? 멋과 풍류를 즐기셨던 옛 어른들이 맛보다는 아무래도 멋(?)으로 먹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진달래화전은 차(茶)와 함께 먹는 음식으로도 일품이라네요.

봄에 피는 꽃들이 특징적으로 잎이 나기 전에 먼저 피듯이 진달래도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진달래와 비슷해 구분이 어려운 철쭉나무입니다. 진달래 잎은 타원형으로 양끝이 좁고 매끄럽게 생긴 반면, 철쭉은 잎이 둥근 모양으로 크고 넓으며 잎과 꽃이 동시에 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가지 끝에 나있는 눈을 만지면 철쭉꽃은 끈적끈적 한 것이 특징입니다. 진달래는 참꽃인 데 반해, 철쭉은 '개꽃'으로 불리며 잎에 독성분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답니다. 꼭~꼭~기억하세요.

그리고 올봄엔 가족과 함께 진달래 화전을 만들어 맛보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진달래화전 만드는 법 ※

재료 : 찹쌀 2.5컵(가루 5컵), 소금 1/4큰술, 끓는 물 1컵, 진달래꽃 10송이, 꿀1/4, 기름조금

1. 찹쌀을 깨끗이 씻어 일어서 물에 12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져 소금을 넣고 빻아 체에 내린다.
2. 고운 가루를 만들어 끓는 물에 익반죽한 후, 직경 5cm 정도로 둥글납작하게 빚어 놓는 다.
3. 진달래꽃은 꽃술을 떼고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아 놓는다.
4.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놓고 누르면서 저진다. 뒤집어서 익은 면에 꽃을 붙인 다음은 뒤집지 않는다.
5. 완성된 진달래 화전에 꿀을 묻혀 낸다. 대추와 쑥으로 모양을 내기도 한다.

6. 소나무꽃가루 '송화가루'





요즘 노란 가루들이 물 위로 둥둥 떠다니거나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셨지요? 소나무의 꽃가루인 '송화가루'입니다. 소나무의 꽃가루는 수꽃에 달렸다가 가능한 한 멀리 퍼져나가 성공적으로 암꽃을 만나고 결실을 맺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답니다. 꽃가루가 날아다니는 기간은 나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5~10일쯤 된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어찌나 영리한지 이를 이용해 송화다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지요. 꽃가루를 잘 말려서 체로 걸러 고운 가루로 만든 후 꿀이나 조청으로 반죽하여 예쁜 다식판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찍으면 전통과자가 됩니다. 때론 색을 넣기도 하는 데 모양도 좋지만 영양도 그만 이랍니다.

소나무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암꽃은 새순 끝에 자줏빛으로 달렸고 노란 방망이 모양을 한 수꽃은 새순 아래쪽에 달려 있습니다. 수꽃의 꽃가루가 암꽃에 닿아야 꽃가루받이가 일어나는데 소나무의 경우 왜 암꽃이 수꽃보다 위에 달리는 걸까요? 바로 유전자가 같은 것들이 만나면 열성이 나오고 다양성이 떨어져 결국은 그 종이 도태하게 되기 때문이라지요. 또한 꽃가루받이가 끝나면 수꽃은 쓸모가 없어서 떨어져 버리지만 암꽃은 계속 열매로 커나가야 하기 때문에 생장이 왕성한 줄기 끝에 달리는 것도 유리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비록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지만 그 삶의 지혜로움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7. 지혜로운 산딸나무

옛날 우리 조상들은 나무와 꽃의 모양이나, 쓰임새, 그리고 잎, 열매, 가시의 특징, 냄새나 맛, 수피의 형태를 보고 나무나 풀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지요. 나무의 모양이 층을 이루며 자란다하여 '층층나무', 전통염색에 매염제로 쓰인 황회를 만들던 나무인데 잿물이 약간 누런빛을 띠어서 '노린재나무', 잎이나 가지에서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하는 '생강나무', 사슴뿔처럼 보드랍고 황금빛을 가진 아름다운 수피라는 뜻에서 녹각나무라 하다가 쉬운 발음으로 변한 '노각나무', 국수 같은 흰 성분이 나온다하여 '국수나무', 가지를 꺾어 물에 담그면 물이 파래진다는 '물푸레나무'등이 있습니다.
모두 법주사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들이랍니다.



이 나무는 가을에 빨간 딸기와 비슷하게 생긴 열매가 달려 '산딸나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답니다. 계절을 알아채고 하얀 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네 장의 꽃잎은 마치 십자가를 본뜬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꽃 모양을 쉽게 설명하느라 네 장의 꽃잎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식물학적으로 꽃잎으로 보이는 부분의 정확한 이름은 포(包)입니다. 산딸나무는 아주 작은 초록색의 꽃들이 축구공처럼 둥그렇게 모여 있는데 꽃들이 워낙 작고 보잘것없어 이렇게 수십 개가 모여 있어도 그 꽃차례(꽃이 배열된 모양)의 지름이 1cm도 안 됩니다.(루페를 통해 꽃을 관찰해 보도록 유도한다)
초록색의 잎이 무성한 숲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는 곤충들의 눈에 잘 들어올 리가 없으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꾀를 내어 꽃차례 바로 아래에 달려 있는 네 장의 포를 마치 꽃잎처럼 희게 만들어 곤충들의 눈에 꽃이 잘 보이도록 스스로 변신한 것이랍니다. 산딸나무는 꽃이 지고 하얀 포가 너덜너덜해질 무렵이면 동그란 초록색의 열매를 맺는데 가을에 빨갛게 익습니다. 표면이 오돌토돌하고 동그란 열매가 잔뜩 달린 모습은 꽃 못지않게 아주 예쁘답니다. 또한 가을에 빨간 열매를 새들에게 먹이로 제공하고 그들을 통해 자손을 멀리 퍼트리려는 것 또한 고도의 전략이 아닌 가 생각되는군요. 봄엔 하얀 꽃이 피고 가을엔 붉은 열매가 달리고 많은 새들이 찾아드니 삭막한 도심의 가로수로도 제일 적합한 나무가 아닐까싶네요. 때로 기능이 정지되어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두고 '식물인간'이라고들 하지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산딸나무를 비롯한 식물들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8. 무당벌레와 잎벌레는 닮았다!

저쪽! 버드나무가 있는 계곡주변으로 발길을 옮겨 볼까요? 버드나무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가지 모양의 조그만 곤충이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누구인지 궁금하지요? 등에 검정색과 붉은색의 점이나 줄무늬를 갖고 있는 모습이 정말 화려한데, 겨울 동안 바위틈이나 낙엽 밑에서 추위와 싸우다가



이제 막 나왔나 봐요.

이 곤충은 배의 흰 바탕에 붉은 무늬가 현란하게 나있는 '무당개구리'와 온몸에 노랑색과 검정색의 띠무늬가 교대로 배열된 '무당거미'와 같이 매우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지요. 무당개구리와 무당거미와 같이 앞날개에 있는 무늬의 빛깔이 무당들이 입는 옷 빛깔과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이 '무당벌레'라고 하는데 또, 곡식을 되는 됫박과 비슷하게 생겨 '됫박벌레'라는 별명도 있어요. 참 재미있는 이름이지요. 그런데, '무당', '무당개구리', '무당거미', 그리고 '무당벌레' 이들은 모두 왜 현란한 치장을 한 것일까요? 단순히 화려해 보이기 위해서만 일까요? 대개의 사람들은 무당이 활옷을 입고 굿을 하는 것을 보면 조금이나마 두려움, 경계심등의 느낌을 갖게 되지요. 같은 이치로 무당개구리를 잡아먹는 천적인 뱀이나 큰 새들이 무당개구리의 현란한 배를 보고 한 순간 흠칫 놀라 먹잇감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무당벌레도 화려한 옷을 입고 공격하려는 천적들에게 "나를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라고 과감하게 경고의 포즈를 취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무당거미', '무당개구리', '무당벌레'가 모두 경고 색 즉, 화려함을 다른 생물에게 "경고"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당벌레는 먹이로 꽃가루와 진딧물, 그리고 작은 각종 곤충의 유충을 잡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또한 천적으로부터 피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에만 나는데, 대부분 나뭇가지나 풀줄기의 끝으로 기어 올라가서 날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무당벌레는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다리의 무릎 샘에서 쓴 맛이 나는 액을 내어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도 한답니다. 작지만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대단하지요.

와~ 이 나뭇가지엔 무당벌레와 외모가 매우 닮은 잎벌레도 있네요.

그럼 무당벌레와 잎벌레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더듬이를 보면 무당벌레는 와이(Y)자형으로 휘어져 있고, 잎벌레는 일자 모양으로 뻗어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지요. 또 발목의 마디가 무당벌레는 세 마디로만 뚜렷이 구분 되는데, 잎벌레는 네 마디이며 모두가 길쭉



▲잎벌레

하답니다. 이젠 무당벌레와 잎벌레를 혼동하지 않을 자신 있지요?

9. 산에는 생강나무, 들에는 산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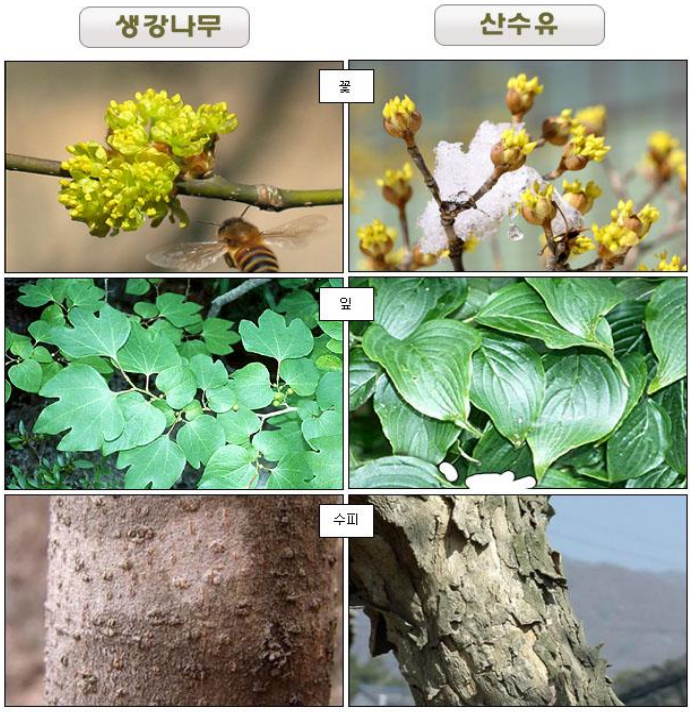
숲 속의 봄을 색으로 표현을 한다면 무슨 빛깔일까요?

아마도 제 생각엔 봄은 노란색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고요? 봄엔 노란색으로 대표되는 복수초, 민들레, 산괴불주머니, 생강나무, 산수유, 등의 꽃들이 연달아 피니까요.

그럼, 지금 갓 피어난 듯한 이 작고 귀여운 꽃은 이름이 무엇인지 오감으로 체험한 후 맞추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대부분 숲에서 자생하는데 봄이 오면 산에서 갯버들 다음으로 꽃이 일찍 피는 나무랍니다. 꽃만 보면 생강나무와 산수유가 아주 비슷한데요. 잎과 가지에서 생강냄새가 난다하여 '생강나무'라 부른답니다. 옛날 산간지방에선 동백기름 대용으로 머리에 바르기도 해 '산동백'이라고도 부른다는군요. 제가 미리 준비한 잎과 죽은가지를 가지고 향기를 맡아 보세요. 씹어서 맛을 보아도 좋아요. 아마도 생강과 같이 쌉싸름하고 진한 독특한 향이 날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생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레몬 냄새라는 친구들이 많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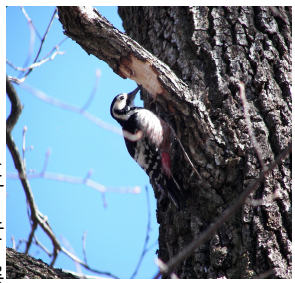
그럼 닮은꼴인 생강나무와 산수유를 비교해볼까요? 여기 준비한 사진을 보세요.

생강나무와 꽃과 너무 흡사하지요? 이 나무는 층층나무과의 산수유입니다. 생강나무와 산수유는 사진에서처럼 수피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강나무는 수피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는 반면, 산수유는 수피가 너덜너덜 지저분하게 벗겨지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생강나무는 꽃자루가 거의 없이 줄기에 꽃이 피고, 산수유는 줄기가 아닌 가지 끝에 꽃이 핍니다. 잎도 생강나무는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산수유는 중국에서 들여와 약재로 이용하기 위하여 민가에서 재배하였다니 마을 주변에서 만나는 것은 산수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도만으로도 산을 오르다 생



강나무를 만나면 알아보겠지요. 만나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 보세요.

10. 숲 속의 의사, 큰오색딱따구리



“드르르르륵”, “드르르르륵”, “두둑”, “두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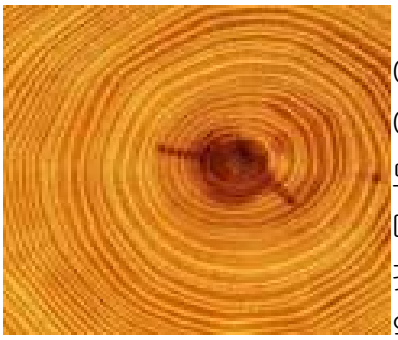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소리만 들어도 딱따구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드르르륵’ 소리는 외부 침입자를 경계하는 소리구요, ‘두둑두둑’ 소리는 벌레를 잡기 위해 나무를 쪼는 소리랍니다.

어디서 소리가 들려오는 걸까요? 와~저기예요.

굵은 졸참나무가지 위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있는 큰오색딱따구리를 보세요. 망원경을 통해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먼저 딱따구리의 부리를 보세요. 도끼처럼 날카롭고 길게 생겼지요. 그런 부리 때문에 나무에 구멍도 쉽게 뚫을 수 있답니다. 구멍을 뚫으면 갈고리처럼 길고 뾰족한 혀를 넣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벌레까지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나무를 먹고 사는 벌레를 잡아주니 ‘숲속의 의사’라는 별명을 가졌답니다. 또 위아래에 날카로운 발톱과 뻣뻣한 꼬리털이 있어 몸을 수직으로 지탱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나무를 계속 쪼면 머리가 흔들려 어지럽지 않을까요? 딱따구리의 머리뼈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뇌와 머리뼈가 분리되어 있어 부리로 나무를 아무리 쪼아도 뇌는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정말 신기하지요?

11. 인고(忍苦)의 역사(나이테)



나이 사십을 넘은 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사십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모습이 다를 테니까요. 이렇듯 살아온 역사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에 있는 나무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나이테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나이테는 봄부터 여름까지 세포분열이 가장 활발해 나무가 쑥쑥 자라는 시기에는 목재의 색깔이 연하고 폭도 넓다(춘재)가 가을부터 겨울을 추운 겨울을 견디는 동안에는 아주 천천히 자라나 조직이 치밀해지고 색깔이 진하며 폭도 좁아져 생겨나는 것입니다(추재). 또한 나이테가 생겨나는 간격, 색깔, 흔적 같은 것을 가지고 학자들은 그 지역에 언제 가뭄이 들고, 산불이 났는지, 혹은 곤충의 침입을 받았는지를 추정하고, 크게는 기후가 어떤 주기를 가지고 변화하는지를 예측, 작게는 남북방향에 따라 햇볕을 받은 양과 나이테의 간격이 다른 것을 이용해 나침반처럼 방향을 짐작하기도 합니다. 물론 많이 자란 쪽이 대개는 남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월을 살면서 허송하지 않고 잘 살아온 이들을 두고 연륜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테를 말하는 것이지요. 나무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좋고 편안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힘든 시간이 반복 되는가 봅니다. 저도 근래 몇 년은 추운 겨울나기보다 더 힘겨운 시간이 있었는데요. 모진 겨울 속에서 나무가 더욱 견고해 지듯, 혹 지금 시간들이 너무 힘겹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추운 겨울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 즉, 좋은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세월을 겪어낸 나무들만이 큰 그늘을 드리우는 아름다운 나무로 커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생각 고쳐먹으면 백팔 번뇌가 백팔 은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언행으로 바른 생활을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사십이 넘은 후에 모든 이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좋은 인상의 소유자가 되지 않을까요?

12. 산불은 숲 속의 친구들도 무서워해요

매년 전국적으로 건조한 봄철이나 가을철이면 산불이 종종 일어나 잘 가꾸어온

숲을 한순간 잃게 됩니다. 산림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 속리산국립공원도 봄과 겨울철에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취약지 및 담당구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입산을 통제하는 등 산불로부터 속리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지역 산불로 인해 천년고찰인 낙산사의 피해가 컸던 것을 기억하시죠. 특히 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곳이라 더욱 온 국민이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저도 아직 생생한데요. 산불은 번개 또는 마른나무나 풀들의 마찰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사람들에 의한 과실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오랫동안 정성껏 가꾼 숲을 순식간에 훼손시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니 입산 시에는 모두가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등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요. 또한 산불로 인해 홍수와 토양유실과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키며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숲의 생태계 전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원상 복구 하는 데는 약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 되어야 한다고 하는군요.

자~ 우리 모두~ 산불로부터 우리의 미래인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지키도록 합시다!

13. 나뭇잎 도감 만들기와 오늘 체험한 느낌을 정리하기(마무리)

법주사자연관찰로에서 저와 함께 했던 시간이 어떠셨나요? 힘들고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니 정말 다행이군요. 아무쪼록 오늘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을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주변에서 나뭇잎을 주워 도감을 만들고 오늘 체험한 느낌들을 적어보며 해설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법주사자연관찰로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듯, 나뭇잎의 모양도 매우 다양 합니다. 주변에서 나뭇잎을 주워 자세히 관찰하고 나만의 도감을 만들어 보기로 할까요?

2. 색깔, 감촉(촉감), 향기, 맛 등 오늘 체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을 적어 보세요.